

碩士學位請求論文

英語學習者의 發音誤謬分析과  
그 指導方案

指導教授 金 鍾 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黃 尚 善

1992年 8月

# 英語學習者의 發音誤謬分析과 그 指導方案

指導教授 金 鍾 勳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黃 尚 善



黃尚善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7月 日

審査委員長

黃

亨

澤



審査委員

高

泰

洪



審査委員

金

鍾

勳



〈抄 錄〉

## 英語學習者의 發音誤謬分析과 그 指導方案

黃 尚 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鍾 勳

본 논문은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영어단어와 어구를 발음할 때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여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한 바람직한 지도방법을 고찰하였다.

필자가 설정한 30명의 실험대상 학생들이 160개의 분석대상어와 어구를 발음한 것을 녹음하여 이를 첨가형 오류, 생략형 오류, 대치형 오류, 어순상 오류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첨가형 오류는 학습자들이 영어의 묵음화 현상을 모르는데서 오는 오류와 영어단어를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맞추어 발음하는데서 발생하고 있다.

둘째, 생략형 오류는 자음이 연속되어 이어질 때 선행음을 생략하고 후행음을 발음하는 오류와 전이음 /j r w/의 조음위치를 모름으로써 발생하고 있다.

셋째, 대치형 오류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오류로 한국어 음에 없는 영어음을 발음할 때 그와 유사한 한국어음으로 발음해 버리는 오류와 비음이 아닌 음을 그 음과 조음위치가 유사한 비음으로 발음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어순상 오류는 두개의 자음이 연속될 때 서로 배타적인 소리로 발음이 곤란하기 때문에 발음하기 쉬운 음으로 발음해 버림으로써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음의 오류를 방지하고 교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 지도가 필요하다.

- 1) 첨가형 오류는 묵음화되는 음성환경을 제시하여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 2) 생략형 오류는 오류가 주로 발생하는 파생어와 복합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발음연습을 시킨다.
- 3) 대치형 오류는 개별음소, 단어, 어구, 문장순으로 발음 연습을 하되 유사음소를 갖춘 최소대립어를 통한 훈련을 시킨다.
- 4) 어순상의 오류도 대체적으로 파생어와 복합어에서 발생하므로 그 이전의 본래의 단어에 대한 발음연습을 거치고 나서 파생어와 복합어를 익힌다.

# 목 차

I. 서론	1
II. 발음오류분석의 이론	4
1. 오류의 정의	4
2. 오류의 원인	6
2. 오류의 유형	8
III. 발음오류분석 대상과 방법	10
1. 분석대상학생	10
2. 분석 대상음	11
3. 분석 방법	14
IV. 발음오류의 분류	16
1. 첨가형 오류	16
2. 생략형 오류	20
3. 대치형 오류	22
4. 어순상의 오류	28
V. 오류음의 지도방안	30
1. 오류의 정리	34
2. 오류의 지도방법	36
VI. 결론	55
참고문헌	59
Abstract	61

## I. 서 론

본 논문은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영어 단어와 문장을 발음할 때 어떠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지를 분석하여 그 오류를 어떠한 방법으로 교정·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어를 목표어로 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오류를 범할 것인지 또는 실제로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어학적으로 두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 그 첫째는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의 입장에서 두 언어를 비교·분석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학습상의 문제점을 진단·추정하여 학습지도에 활용하는 것이며, 둘째는 학습자의 오류를 직접 교사가 찾아내어 그것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문제가 되는 오류를 어떻게 교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밝히는 오류분석(error analysis)의 관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위의 두가지 입장을 특징화 시킨다면 첫째, 음운부분에 대해서는 대조 분석이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며, 둘째, 오류분석중에서는 통사상에 나타난 오류를 연구한 것이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발음부분에서 연구된 논문의 대부분이 한국어와 영어의 음운대조분석에 관한 것이며, 1980년대까지 오류분석이 시도되어 왔으나, 그것은 주로 영작문상의 오류를 찾는 데 치중해온 실정이다.

구조주의 언어학의 상표라고 불릴 만큼 한때 Fries(1945)와 Lado(1957)

등에 의해 외국어 교육이론에서도 지지받던 대조분석이론은 학습상의 문제점을 주로 모국어와의 간섭현상에서 진단한다는 점에서 학습대상어 자체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대조분석가설은 학습상의 문제점을 교사가 예측하는데 주안점이 있을 뿐 실제로 학습자들이 범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교사가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는 약점을 수반하고 있다. 게다가 대조분석에서 예견되는 학습상의 문제점이 실제 학습현장의 학습자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조분석이론은 많은 취약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약점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 모국어와의 간섭현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학습상의 문제점 뿐만아니라 학습대상어 내에서 생기는 오류 등을 포함하여 실제로 학습자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관찰, 분류, 분석하여 그 오류를 어떻게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관심을 지금까지는 주로 통사상의 오류, 특히 영작문상에 나타난 오류를 연구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는 다른 어떤 언어분야의 연구 못지않게 학습자들이 발음 부분에서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언어란 어디까지나 소리가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의사 전달면에서도 틀리지 않은 올바른 발음을 하여야 화자가 말하는 바를 청자가 바르게 듣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효율적인 영어발음 지도방안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생들이 발음상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직접 조사·분석하여 그것을 유형별로 정리한후 어떻게 하면 그 오류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오류분석의 이론적 배경을 발음부분과 관련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발음상의 오류를 분석한 대상과 절차를 언급하며, 제4장에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를 다루려고 한다. 제5장에서는 학습자들의 그릇된 발음을 어떻게 교정·지도하는 것이 좋은지를 제시하고, 제6장에서는 결론을 맺고자 한다.



## II. 발음오류분석의 이론

본장에서는 오류의 의미를 실수와 구분하여 파악하고 오류의 발생원인을 규명한 후, 특히 영어학습자의 발음상에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이 어떠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오류의 정의

오류(error)란 사전적의미(lexical meaning)로는 일정한 기준이나 규칙에서 벗어나는 이탈(deviation)이라고 해석되는데, 어떤 학습대상에 내재하고 있는 일정가치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잘못된 추측으로 인하여 그 기준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production)을 말한다. 정상적인 모국어 화자의 문법적인 규칙에서 되풀이 하여 벗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오류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실수(mistake)와 구분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수는 학습자가 언어수행(performance)상에 저지르게 되는 잘못이나 잘못된 행위를 반영한다. 그것은 육체적인 피로·정신적인 압력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우연하게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일정한 체계가 없고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으며 일단 잘못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학습자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수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그러므로 실수는 일종의 착오(lapses)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오류(error)는 정상적인 모국어 화자(native speaker)의 성인문법기준에서 이탈(deviation)되는 것으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능력을 근거

로한 표현이다. 따라서 실수와 달리 항상 체계적(systematic)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rown(1980)은 실수와 오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It is crucial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mistakes and errors, technically two different phenomena. A mistake refers to a performance error that is either a random guess or a "slip", in that it is a failure to utilize a known system correctly. All people make mistakes in both native and second language situations. Native speakers are normally capable of recognizing and correcting such "lapses" or mistakes, which are not the result of a deficiency in competence but the result of some sort of breakdown or imperfection in the process of producing speech<sup>1)</sup>.



따라서 스스로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화자 자신이 인지할 수 있어서 본인이 의사만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언어지식면에서의 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언어습득과정에서도 크게 중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오류의 경우에는 학습자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것이므로 좀처럼 학습자에 의해 발견되거나 수정이 안된다. 결국 학습자가 학습목표어에 대한 언어지식 부족으

---

1) H.D.Brown(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 New Jersey : Prentice - Hall Inc, p.165.

로 인하여 모국어 화자의 성인문법에서 이탈하는 현상이므로 외국어학습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Bell(1981)에도 잘 나타나 있다.

An error is a sure sign that the learner has not mastered the code of the target language. Why he has not mastered it and why the form of the error is as we observe it rather than a different form are questions which we will raise in a moment. If an error indicates faulty knowledge of the grammar of the L2, we must define the error as something which arises as a result of L2 learning and is not, therefore, to be found in the L1 user of the language.<sup>2)</sup>

그러므로 학습자의 실수는 언어습득과정과는 무관하나, 오류는 학습목표에 대한 지식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넓게는 학습목표어의 외적인 간섭(interlingual interferences)과 언어 내적인 간섭(intralingual interferences)을 다 포함하는 현상이라 보아야 바람직하다.

## 2. 오류의 원인

이들 볼때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언어간의 차이에서 발생하거나 언어

---

2) Roger T. Bell(1981), *An Introduction to Applied Linguistics :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London : Batsford Academic and Educational Ltd, P.172.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일어남을 짐작할 수 있다. 모국어와의 간섭현상으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며 모국어 및 목표언어 자체 내에서 오류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Richards(1974)는 그의 연구보고서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에게 흔히 일어나는 오류를 다음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간섭오류(interference error), 언어내적오류(intralingual errors), 발전오류(developmental error)가 그것이다.<sup>3)</sup>

간섭오류는 학습자가 학습목표어 수행시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영어단어 think를 발음할 때 한국어의 /스/인 /s/와 간섭현상을 일으켜 [sigk]로 발음하는 현상을 뜻한다.

언어내적오류는 목표어 구조 내에서 범하는 오류로 목표어규칙체계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목표어규칙을 과잉적용하거나 불완전한 적용으로 인하여 범하게 되는 오류이다. 예컨대 영어 단어 working을 [warkig]으로 발음하지 않고 [warkin]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발전오류는 학습자가 목표어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목표어에 대한 그릇된 가설로 범하게 되는 오류로 목표어를 습득하려는 학습자의 전략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음 /p/를 습득한 한국인 학습자는 /f/를 배울 때에도 /p/와 장애현상을 일으켜 잘못된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Corder(1981)도 외국어 학습시 범하게 되는 오류의 원인을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 세가지는 전이적오류(transfer errors),

---

3) J.C.Richards(1974), *A Non-Contrastive Approach to Error Analysis*, English Language 25, pp.204-19.

유추적오류(analogical errors), 과일반화오류(overgeneralization errors)이다. 전이적오류는 모국어로 인해서 외국어 학습상 전이를 일으키는 간섭현상을 말하며, 유추적오류는 학습목표어 내에서 범하게 되는 오류를 뜻하고, 과일반화오류는 학습자가 목표어내에서 이미 학습한 구문에 근거하여 이탈된 구조(deviant structure)를 파생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급한 오류의 원인을 요약하면, 첫째 학습대상어 자체의 구조상의 복잡성, 둘째 규칙학습의 부족, 셋째 규칙의 과잉적용, 넷째 유추의 경향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 3. 오류의 유형

앞에서 오류의 의미와 원인을 살펴보았거니와 그같은 오류는 언어를 구성하는 음운, 통사, 의미 구조상의 어느 구조에도 다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오류분석은 대부분 통사의미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발음상에 나타난 오류분석에 대한 연구는 대조분석의 많은 양에 비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통사의미상의 오류유형을 보고 음운상의 오류유형을 관련시키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Corder(1981)나 Brown(1980)을 보면 오류의 유형은 음운구조나 문법, 어휘, 철자등에 관계없이 다 네가지로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Corder는 그 유형으로 생략(omission), 첨가(addition), 선택(selection), 위치변화(reordering)등을 들고 있으며<sup>4)</sup>, Brown(1980)은 첨가(addition), 생략(omission), 대치(substitution), 어순(ordering)을 제시하고 있다.<sup>5)</sup>

4), S. Pit, Corder(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 Oxford University Press, p.36.

5) H. Douglas Brown(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rentice-Hall inc., p.169.

통사구조상 발생하는 오류중에서 Brown(1980)의 첨가형은 “Can he sing?”을 “Does can he sing?”으로 표현하는 경우로 불필요한 does의 첨가로 인한 오류이다. 생략형은 “I went to the movie.”를 “I went to movie.”로 정관사를 생략하는 오류이며, 대치형은 “I lost my way.”를 “I lost my road.”로 표현하여 way대신에 road로 대치하는 경우이다. 또 어순상의 오류는 “I went to the store.”를 “I to the store went.”로 어순을 잘못 배열함으로써 발생한 오류를 말한다.

따라서 이 유형을 영어학습을 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발음상의 오류에 연관시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첨가형 오류는 Christmas를 [krisməs]로 발음하지 못하고 [kirisimasi]로 발음함으로써 불필요한 ‘으’모음 /i/가 첨가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생략형오류는 wool을 [wul]로 발음하지 못하고 [ul]로 잘못 발음하는 오류를 가리킨다. 셋째, 대치형오류는 very를 [veri]가 아니라 [beri]로 대치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넷째, 어순상의 오류는 unless를 [anles]로 발음하지 않고 /n/과 /l/을 바꾸어 [alnes]로 발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영어를 목표어로 학습하는 한국인 고등학교 학생들의 발음상에 나타나는 오류를 위와 같이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오류의 빈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즉, 첨가형오류, 생략형오류, 대치형오류, 어순상의 오류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Ⅲ. 발음오류분석 대상과 방법

여기서는 영어학습자의 오류를 수집, 분석한 대상과 절차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음을 발음하게 했을 때 오류를 범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 1. 분석대상 학생

이 논문에서 발음오류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학생들은 필자가 근무하는 서귀포시 중문상업고등학교 1학년 학생중 입학고사 성적이 상위 30위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다. 이들 학생들은 제주도내 연합고사 실시 지역의 다른 학생들보다는 성적이 떨어지지만 본교에서는 그런대로 공부에 관심을 많이 두는 학생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부터 영어공부를 정상적으로 해왔으며 소수의 학생들은 국민학교 때부터 영어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점에서 피실험자들은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추정되며 발음 수준도 보통은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필자가 30여명의 학생들을 발음오류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주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영어 학습 동기가 비교적 높고 발음 부분에서 보통의 수준은 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어느 정도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적이 이보다 더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류분석을 하면 오류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 본 연구의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은 실험대상

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남여 성별은 분석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남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여학생만 선정하였다.

## 2. 분석대상음

이 연구에 이용한 분석대상음의 선정은 본교 1학년 3반 정보과 47명을 대상으로 현행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재 읽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거나 필자가 수업시 학습자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하는 과정에서 발음상 오류를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습자가 평소의 학습 상황에서 발음할 때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음을 자연스럽게 수집한 것이며 정상적으로 발음되고 있는 음은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주로 영어 단어와 구(phrase)속의 분절음인 자음과 모음을 대상으로 발음을 하도록 하고 문장 속에서의 발음관계는 분석의 내용을 바꿀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다. 자음 중에서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음군에 대한 발음도 관찰하였다.

이 분석에서 사용한 총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표) 분석대상어 목록

일련번호	분석대상어	일련번호	분석대상어	일련번호	분석대상어
1	abnormal	2	all right	3	aloud
4	almost	5	although	6	answer
7	at least	8	asked	9	attempt

일련번호	분석대상어	일련번호	분석대상어	일련번호	분석대상어
10	author	11	awful	12	back
13	back number	14	back yard	15	ball
16	balance	17	banyan	18	barber
19	barley	20	bat	21	between
22	big man	23	big mistake	24	billiard
25	blacksmith	26	bomb	27	bought
28	breath	29	breathe	30	brilliant
31	brow	32	but listen	33	calm
34	campfire	35	castle	36	cause
37	cave	38	ceramic	39	chestnut
40	children	41	Christmas	42	civilian
43	climate	44	climb	45	cocentra- -tion
46	cousin	47	creature	48	curve
49	delicate	50	desire	51	doubtful
52	driven	53	early	54	early in the south
55	enough	56	entertain- -ment	57	exact
58	exercise	59	exhibit	60	exist
61	favor	62	film-making	63	find

일련번호	분석대상어	일련번호	분석대상어	일련번호	분석대상어
64	fire	65	folk	66	full name
67	gas burner	68	get light	69	goodness
70	good night	71	great number	72	handkerchief
73	handsome	74	handwriting	75	hang up my coat
76	helpful	77	homeless	78	honest
79	honor	80	hopeful	81	hot month
82	in common	83	in fact	84	instrument
85	island	86	keep neat	87	keep young
88	kick me	89	landscape	90	law and order
91	leave	92	lens	93	let me see
94	line	95	lion	96	listen
97	load	98	lonely	99	magnificent
100	mainly	101	method	102	moon light
103	mouth	104	nature	105	nearly
106	not yet	107	obvious	108	of
109	offer	110	only an hour	111	opportunity
112	overflow	113	painfully	114	perform

일련번호	분석대상어	일련번호	분석대상어	일련번호	분석대상어
115	plow	116	poorly	117	port
118	pure	119	rainful	120	rightness
121	risen	122	risked	123	sadness
124	saw	125	signal	126	singing
127	sir	128	smooth	129	sofa
130	spring	131	sorry	132	spoon
133	still wrong	134	student	135	submarine
136	submit	137	surface	138	sword
139	talk	140	thief	141	think
142	this	143	tomb	144	though
145	touched	146	trunk	147	unless
148	value	149	very	150	walk
151	weather	152	well-known	153	width
154	witness	155	wool	156	working
157	would	158	year	159	year round
160	zoo				

### 3. 분석방법

앞에서 작성한 분석대상어를 30명의 학생들에게 제시한 후 발음하도록 하여 두 번 녹음하였다. 녹음전에 학생들로 하여금 분석대상어가 있는 단어나 구를 한번만 보도록 하였고 미리 읽고 연습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실험자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생생한 발음자료를 얻을 수 없을 지 모른다는 이유와 가능한 한 그들의 평소의 영어 발음을 알기 위해 이 분석을 하는 목적이나 성격 및 용도 등은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본교에는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만한 관련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시설과 기기 사용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외부의 잡음이 녹음되지 않고 선명하게 녹음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조용한 과학실을 이용하였다. 자체 녹음마이크가 부착되어 있는 녹음기는 잡음이 많이 끼어들기 때문에 녹음기에 별도 마이크를 설치하여 길게 늘어뜨려서 녹음하였다. 첫번째 녹음시에는 단어에 익숙해 있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단어와 구 때문에 녹음하는 데 네시간 삼십분이나 걸렸으나 두번째 녹음에서는 세시간 동안에 녹음이 가능하였다.

한 단어 당 두번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단어 자체에 대한 발음 속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완전한 발음이 몇번씩 되풀이 되어 오류분석 기준으로 삼기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이따금씩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피실험자가 잘못 발음하였다고 생각할 때에는 스스로 수정하도록 시간여유를 주었고 또 이전 발음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어서 발음하도록 하였다. 발음상의 어떤 규칙이나 체계성을 짐작하지 못하도록 실험대상의 단어들을 현행 고등학교 교재의 부록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이 분석에서 다른 오류음은 필자가 알고 있는 발음지식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교과서를 녹음한 영미인의 음을 모형으로 삼았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 필자는 이 녹음 테이프를 여러번 듣는 기회를 가졌다.

#### IV. 발음오류의 분류

본 장은 제3장의 분석 절차에 기반을 두어 분석대상학생들이 영어 발음 시 흔히 범하는 오류를 분류하고 그 오류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Brown(1980)이 제시한 네가지 오류 유형, 즉, 첨가형 오류, 생략형 오류, 대치형 오류, 어순상의 오류로 분류해 보고 그 같은 오류가 왜 생기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 1. 첨가형 오류

이 유형은 원래 모국어 화자의 영어 발음에는 없으나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 단어를 발음할 때는 자음이나 모음을 첨가시키는 오류에 해당한다. 피실험자들이 범한 이 유형의 오류를 자음과 모음의 순서로 나타내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1) 자음 첨가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 /θ/	a. bomb	/b/	3	3	3
	b. climb		0	0	0
	c. tomb		3	0	1.5
2) /θ/	a. handsome	/d/	30	20	25
	b. handkerchief		76	60	68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3) /θ/	a. honor	/h/	3	3	3
	b. honest		3	3	3
4) /θ/	a. calm	/l/	36	10	23
	b. folk		6	0	3
	c. talk		9	6	7.5
5) /θ/	a. island	/s/	6	3	4.5
6) /θ/	a. castle	/t/	6	6	6
	b. chestnut		63	93	78
	c. listen		0	0	0
7) /θ/	a. answer	/w/	3	0	1.5
	b. awful		40	33	36.5
	c. sword		73	86	79.5

표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위 오류들을 보면 모국어 화자들이 묵음으로 내재화하고 있는 것을 학습자들이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다시말해 영어라는 학습목표어 자체의 발음체계나 규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이다. 이는 Richards(1974)가 주장한 언어내적오류(intralingual errors)를 의미한다<sup>6)</sup>. 물론 단어에 따라서는 오류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으나, handkerchief의 경우 /d/음을 첨가시키는 오류율은 68%에 이르고 있으며 chestnut의 /t/음 삽입은 79%, sword의 /w/음 첨가는 79.5%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학습자들에게는 영어의 모국어 화자들과는 달리 평소 영어의 모든 철자는 다 발음하는 것으로 잘못

6) J. C. Richards(1974), *op. cit.*, pp.204-19.

알고 있는 점이 오류를 유발케 하고 있다.

표 2) 모음 첨가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 /θ/	a. blacksmith	/i/	93	100	96.5
	b. Christmas		96	100	98
	c. spring		66	76	71
2) /θ/	a. smooth	/u/	33	50	41.5
	b. spoon		56	60	58
	c. student		50	53	51.5

표 2)는 한국어와 영어의 단어 구조상 차이로 영어의 원래 발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모음을 첨가시키는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영어의 자음과 자음 사이 그리고 어말에서 모음을 첨가시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오류는 근본적으로 영어 단어를 이루는 음절에 대한 구조와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를 배울 때 모국어인 한국어와의 간섭 현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Richards(1974)의 간섭오류(interference errors)나 Corder(1981)의 전이적오류(transfer errors)<sup>7)</sup>에 해당한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영어의 음절 구조는 음성상 모음을 기준으로 그 앞에 자음이 최대 3개 올 수 있으며 그 뒤에는 4개까지 최대로 허용이 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음성상 모음 앞에 자음 하나가 오며 모음 뒤에도 자음이 하나만 허용된다. 이를 좀더 공식화 시킨다면 영어의 음성상에 나타나는 최대 음절구조는 CCCVCCCC이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C(G)VC로 표시된다. 예컨대 영어 단어

7)S. Pit,Corder(1981), *op. cit.* pp.161-70.

strengthened나 한국어의 ‘광’의 구조가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이같은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익숙해 있는 학습자들이 영어 단어를 접하게 되면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맞추어 영어 단어를 재분절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영어 단어를 재분절하는 현상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김기섭(1977)을 들 수 있다<sup>8)</sup>. 재분절시 삽입되는 불필요한 음이 바로 위에 나타난 /으/(i)나 /우/(u)음으로 학습상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첨가형오류는 단어와 단어의 중간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고 있다. 다음의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3) 어구상 첨가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 /θ/	a. back yard	/n/	10	23	16.5
	b. keep young		36	60	48
	c. not yet		6	3	4.5
2) /θ/	a. early in the south	/r/	46	40	43
	b. law and order		3	0	1.5
	c. only an hour		16	16	16

표 3)의 1)항은 앞단어의 어말을 비음화시키면서 뒷단어 어두에 /n/을 첨가하여 일어나는 오류이다. 이 오류는 영어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보다 오히려 높은 학생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2)항은 조음점이나 조음방법이 유사한 앞단어의 발음이 뒤따르는 모음

8)김기섭(1977), “영어 오류음에 대한 음운론 해석”,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과 영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과 언음되어 조음될 때 원래 없던 /r/음을 첨가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를들어 idea of[aɪdiarəv]에서와 같이 /r/의 침입에 대해 학습자가 교사에게서나 어디션가 교육받고 그에 대한 규칙을 과잉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로 보인다. 즉, Corder(1981)의 과일반화오류(overgeneralization)에 가깝다.

## 2. 생략형 오류

이 오류는 모국어 화자들이 영어의 단어를 발음할 때와는 달리 원래 있던 음을 학습자들이 탈락시키는 오류 유형을 말한다. 생략형 오류를 자음과 전이음의 예를 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자음탈락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 /d/	a. handwriting	/θ/	0	0	0
	b. landscape		36	20	28
	c. width		53	30	41.5
2) /p/	a. attempt	/θ/	16	30	23
	b. campfire		10	3	6.5
	c. hopeful		13	6	9.5
3) /t/	a. doubtful	/θ/	30	16	23
	b. rightness		50	53	51.5
	c. witness		66	70	68
4) /b/	a. obvious	/θ/	13	36	24.5

표 4)는 자음과 자음이 연속 일어나는 곳을 발음할 때 앞자음 보다 뒤에오는 자음을 우선해서 발음하고자하는 의욕이 앞서서 선행음을 생략하고 후행음을 발음하는 데서 오류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위 단어들이 대부분 복합어이거나 파생어인 경우를 생각하면 대부분 단어의 음절 말을 탈락시키는 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전이음 탈락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 /j/	a. year	/ø/	66	83	74.5
	b. banyan		30	53	41.5
	c. pure		40	46	43
2) /r/	a. barber	/ø/	46	56	51
	b. curve		43	73	58
	c. sir		26	46	36
3) /w/	a. between	/ø/	3	3	3
	b. wool		40	63	51.5
	c. would		63	63	63

표 5)는 전이음 /j,r,w/의 조음 위치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오류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1)항의 a)의 경우는 조음방법을 몰라 [ia]로 발음함으로써 /j/음 자체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는 경향에서 비롯되고 있다. b)와 c)의 경우는 한국어의 /여/, /유/에 해당하는 음이기 때문에 조음방법상의 어려움은 a)에 비해 적은데도 생략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항의 /r/음은 어두에서 생략하는 경우는 없으나 어중간이나 어말에서

는 삭제시켜 발음함을 나타내준다.

3)항에서 /w/음이 어두에서 후설모음 앞에 나올 때 발음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3. 대치형 오류

학습자가 범하는 대치형 오류란 원래의 음을 그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다른 음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은 한국인 학습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오류에 해당한다.

표 6) /b.f.v/ → /p'.p.b/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 /b/	a. back	/p'/	20	26	23
	b. ball		10	10	10
	c. bat		13	20	16.5
2) /f/	a. find	/p/	76	80	78
	b. offer		83	93	88
	c. enough		86	93	89.5
3) /f/	a. fire	/hw/	46	36	41
	b. perform		23	0	11.5
	c. overflow		20	0	10
4) /v/	a. very	/b/	70	63	66.5
	b. favor		96	90	93
	c. cave		96	96	96
5) /v/	a. value	/f/	3	0	1.5
	b. of		33	20	26.5
	c. leave		23	13	18

표 6)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 발음시 양언어의 음체계상 영어에는 있으나 한국어에는 없는 /f/와 /v/를 발음할 때 /p/와 /b/음으로 대체해서 발음하는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1)항에서는 외래어로만 생각되는 단어들을 발음할 때 한국인 학습자들이 /b/를 경음화된 /ㅃ/로 발음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2)항과 4)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f/와 /v/를 발음할 때 대부분 학생들이 /p/와 /b/로 바꿔 발음하고 있다. 그러나 어두에서는 학습자들이 의식적으로 원음을 발음하려는 경향도 있다.

3)항에서는 /f/음을 의식적으로 발음하려는 학생들에게서 원음을 잃고 /hw/음으로 발음해 버리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특히 5)항은 /v/를 발음할 때 어두에서는 /f/음으로 발음하지 않으나 어말에서 b)에서 처럼 철자를 의식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c)의 경우는 한국 학생들이 보통 어미에서 말을 흐리면서 약하게 발음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v/음을 발음할 때 어두에서는 /b/로 어말에서는 /f/로 조음됨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θ/, /ð/ → /s/, /d/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 /θ/	a. think	/s/	86	93	87.5
	b. method		43	60	51.5
	c. mouth		73	86	79.5
2) /θ/	a. thief	/d/	53	93	73
	b. author		60	86	73
	c. breath		10	23	16.5
3) /ð/	a. though	/s/	0	3	1.5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3) /ð/	b. although	/s/	6	0	3
	c. smooth		53	36	44.5
4) /ð/	a. this	/d/	76	100	88
	b. weather		53	90	71.5
	c. breathe		33	70	51.5

표 7)은 영어의 /θ/와 /ð/음이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s/나 /d/로 바꿔 발음하는 오류를 보여준다.

1)항에서 a) b) c)간 오류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b)의 경우는 /s/음으로의 대치하는 이외에도 /t/로 바꿔 발음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s/음으로의 대치오류는 상대적으로 적어도 전체 오류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2)항에서는 a) b)의 오류는 비슷하나 c)의 경우는 /s/음으로의 오류가 많다.

3)항의 경우 어두나 단어 중간에서 /ð/를 /s/로 발음하는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미에서는 종종 나타났다.

4)항에서 /ð/를 /d/으로 발음하는 오류가 어두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단어 중간, 어미에서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비교적 breath와 breathe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t/ → /d, tʃ/, /tʃ/ → /t/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 /t/	a. think	/d/	33	23	28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 /t/	b. touched	/d/	26	16	21
	c. risked		33	23	28
2) /t/	a. trunk	/tʃ/	30	23	26.5
	b. instrument		6	6	6
	c. concentration		43	36	39.5
3) /tʃ/	a. nature	/t/	0	0	0
	b. creature		3	0	1.5
	c. opportunity		60	50	58

표 8)의 오류는 1)항에서 과거형 ed에 대한 발음을 /t/에서 /d/로 유성음화시켜 잘못 발음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오류는 앞의 자음이 /k/나 /tʃ/일 때 그 뒤에 불필요한 /i/음을 삽입한 후 그로 인해 /t/음을 /d/로 유성음화시켜서 발음하는 현상이다.

2)항과 3)항의 경우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발음에서는 오류가 매우 적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오류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z/ → /s dʒ/, /s/ → /ʃ/, /gz/ → /ks/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 /z/	a. cause	/s/	30	30	30
	b. exercise		33	16	24.5
	c. lens		13	10	11.5
2) /z/	a. zoo	/dʒ/	76	90	83
	b. cousin		66	73	69.5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2) /z/	c. desire	/dʒ/	53	80	66.5
3) /s/	a. sofa	/ʃ/	13	33	23
	b. sorry		6	6	6
	c. magnificent		63	73	68
4) /gz/	a. exact	/ks/	20	6	13
	b. exist		56	46	51
	c. exhibit		33	16	24.5

표 9)에 나타나는 오류는 조음위치를 잘 모르거나 조음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습자가 그 음을 접하게 될 때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음으로 대치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1)항의 경우는 한국어에 유성(voiced)과 무성(voiceless)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2)항의 경우도 영어의 /z/를 한국어의 자음 /ʒ/으로 인지되어 학습자들이 그 음의 영어음 표기인 /dʒ/로 발음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3)항과 4)항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경험부족과 영어의 규칙체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무의식적으로 모국어음으로 대치하거나 이미 학습된 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

표 10) /l/ → /r/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 /l/	a. line	/r/	70	70	70
	b. lion		56	53	54.5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 /l/	c. lord	/r/	50	70	60

표 10)은 영어의 /l/이 어두에서 /r/로 대치되는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오류는 학습자들이 영어의 /l/과 /r/을 한국어처럼 동일한 /ㄹ/로 생각하기 때문에 범하는 오류이다.

표 11) 비음화 대치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 /b/	a. abnormal	/m/	13	6	9.5
	b. submarine		40	16	28
	c. submit		36	43	34.5
2) /n/	a. rainfall	/m/	26	23	24.5
	b. entertainment		46	46	46
	c. in fact		56	70	63
3) /l/	a. early	/n/	10	13	11.5
	b. homeless		56	50	53
	c. painfully		26	23	24.5
4) /d/	a. goodness	/n/	86	93	94.5
	b. sadness		10	10	10
	c. good night		80	100	90
5) /g/	a. singing	/n/	23	10	16.5
	b. working		10	6	8
	c. film-making		23	16	19.5

표 11)에서는 비음과 공명성 요소를 지닌 음의 영향을 받아 그 전·후음을 비음화시켜 발음함으로써 생기는 오류이다.

1)항은 비음 /m/·/n/앞에 오는 /b/를 /m/으로 발음하는 경우이다.

2)항에서는 /m/·/f/앞에서 /n/을 /m/으로 잘못 발음하는 오류이다. 음절이나 단어끼리 연결되어 발음되어질 때 뒷음을 발음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면서 앞음의 발음을 변화시키는 경우이다.

3)항 b)의 경우는 /m/뒤에 오는 /l/을 /n/로 발음하는 오류가 많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a)와 c)의 경우처럼 /l/을 /n/보다 /r/로 발음하는 오류가 많이 생기고 있다.

4)항의 a) b) c)는 유사한 음성환경임에도 a)와 c)에서는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b)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오류의 차이는 a)와 c)에서는 /d/를 앞음의 받침으로 발음하고 있고 b)의 /d/는 그 다음에 '으'를 삽입함으로써 받침이 아닌 별개 음절로 간주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즉, 앞에서 말한 바 있는 불필요한 /i/모음을 삽입함으로써 영어의 음절구조를 한국어의 음절구조로 재분석하여 발음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5)항의 /g/음인 경우는 그것이 별개 단어 일 때는 오류가 낮으나 어구에서는 오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 모음 대치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au/	a. aloud	/ou/	63	63	63
	b. brow		86	86	86
	c. plow		83	76	79.5
2) /æ/	a. balance	/a/	10	3	6.5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2) /æ/	b. ceramic	/a/	66	66	66
	c. gas burner		26	26	26
3) /i/	a. children	/ai/	3	13	8
	b. driven		86	93	89.5
	c. risen		50	43	46.5
4) /i/	a. climate	/ei/	46	53	49.5
	b. delicate		96	93	94.5
	c. surface		63	53	58
5) /ɔ:/	a. almost	/ou/	0	15	7.5
	b. bought		50	90	70
	c. saw		70	80	75
6) /ɔ/	a. offer	/ə/	36	43	39.5
	b. port		0	0	0
	c. walk		60	70	65
7) /j/	a. billiard	/i/	66	86	76
	b. brilliant		26	40	33
	c. civilian		26	50	38

표 12)에서는 모음발음시 모국어의 간섭현상과 목표어 자체내의 간섭현상이 잘 나타나 있다.

1)항에서는 학생들이 /ou/와 /ow/을 발음할 때 무의식적으로 철자와 관련시켜서 [ou]로 발음하는 오류가 높게 일어나고 있다.

2)항의 예들은 학습자들이 흔히 접하고 있는 일종의 외래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할 때 편리한 한국어소리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영어의 문장을 접할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3)항의 예들은 단수와 복수, 현재형과 과거분사의 발음시 단수형과 현재형의 발음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이다. a)항의 오류가 다른 두단어에 비해 적은 것은 학습현장에서 이 단어에 대한 발음 지도나 교정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4)항의 「모음+자음+e」의 단어구조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단어 「-ine」나 「-ate」로 끝나는 것은 각각 [ain], [eit]로 발음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새로운 단어에도 선행학습된 발음방법을 적용시키므로써 오류가 일어나고 있다.

5)항에서는 [ɔ:]가 [ou]로 대체되어 발음되는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ɔ/의 장음을 그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6)항의 b)에서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있으며 a)와 c)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7)항에서는 a)의 경우는 오류가 높고 b) c)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다. b) c)의 후미의 음성환경이 동일하며 오류발생율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3) 어구상에서의 비음화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 /p/	a. keep neat	/m/	63	83	73
	b. keep young		53	80	66.5
	c. hang up my coat		16	36	26
2) /t/	a. hot month	/n/	63	73	68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2) /t/	b. let me see	/n/	73	100	86.5
	c. great number		20	10	15
3) /k/	a. back number	/g/	40	53	46.5
	b. in common		13	3	8
	c. kick me		73	66	69.5
4) /g/	a. signal	/g/	26	16	21
	b. big man		83	100	91.5
	c. big mistakes		80	96	93

표 13)의 오류는 원래가 비음이 아닌 /p/·/t/·/k/·/g/음이 비음으로 대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항에서 학습자들은 /m/·/n/앞에 오는 /p/를 조음위치가 같은 음인 /m/으로 발음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고 있다. 조음위치는 /p/음으로 잡았는데 뒤에 오는 /n/음으로 미끄러지면서 뒤에 오는 음으로 동화되어 발음하는 오류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숙달된 학생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2)항에서는 비음 앞에 온 /t/를 /n/음으로 대치시켜 발음하고 있는데 앞 음절의 받침으로 발음할 때는 오류가 a) b)에서 처럼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c)의 경우는 독립음절로 발음함으로써 오류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3)항에서는 비음 앞에서 /k/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으므로 해서 비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다. 이와 같은 오류는 독립된 음성환경, 즉 비음의 영향이 없는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4)항의 비음화도 3)항과 유사한 오류를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14) 측음화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 /n/	a. full name	/l/	20	30	25
	b. moon light		13	10	11.5
	c. well-known		86	80	83
2) /r/	a. all right	/l/	80	96	88
	b. still right		80	86	83
	c. year round		86	86	86
3) /t/	a. at least	/l/	16	10	13
	b. but listen		20	20	20
	c. get light		40	16	28

표 14)에서는 측음 /l/다음에 /n/·/r/·/t/로 시작되는 단어가 올 때 그 측음과 동일한 음으로 발음하는 오류를 가리켜주고 있다.

1)항에서는 a) b)에 비해서 c)에서 오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l/과 /n/을 동시에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다.

2)항에서는 a) b) c)가 비슷한 오류를 보이고 있다. 선행음인 /l/음의 영향으로 후행음이 측음화 되어 잘못 발음되는 경우이다.

3)항에서는 /l/앞에서 /t/가 올 때 좀더 쉽고 자연스러운 음으로 발음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되는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 4. 어순상의 오류

이 오류 유형은 발성시 앞음과 뒷음을 서로 바꿔 발음하는 유형을 말한

다. 영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ask를 [æks]로 발음하는 것과 같다.

표 15) 어순상의 오류

원 음	보 기	오류음	오 류 율		평균오류율
			1	2	
1)/nl/	a. lonely	/ln/	36	16	26
	b. mainly		20	23	21.5
	c. unless		33	13	23
2)/pf/	a. campfire	/fp/	30	23	26.5
	b. helpful		33	23	28
	c. hopeful		30	23	26.5
3)/rl/	a. barley	/lr/	56	60	58
	b. nearly		46	63	54.5
	c. poorly		56	63	59.5

표 15)에서는 어순상 잘못 발음해버리는 경우로 두개의 자음이 연속되어 일어날 때 서로 배타적인 소리로 발음상 곤란을 느낄 때 발성시 양성을 띤음을 발음하려는 학습자의 의사가 표출되는 오류를 말한다.

1)항의 /n/이 발음상 /l/과 바뀌진 것은 /n/음을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l/음을 먼저 어순을 도치시켜 발음하는 현상이다.

2)항에서는 한국어 음소조직(sound system)에 없는 /f/음과 그와 유사한 한국어 음인 /ㅍ/의 소리인 /p/로 대치하려는 경향으로 앞에 있는 /p/음은 약해지면서 /f/음으로 조음되고 뒤에 오는 /f/는 /p/음으로 어순을 바꿔 발음하는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3)항은 1) 2)의 어순도치에 비해서 훨씬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r/음의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고나서 /l/음이 조음된 후에 /y/음 앞에 /r/음이 첨가되어 발음하는 현상을 말한다.

## V. 오류음의 지도방안

여기서는 학습자들이 범하는 실제 오류음을 어떻게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찰해 보겠다.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서 수집되는 그릇된 발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분류한 오류를 간단히 정리하는 일부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 1. 오류의 정리

3장에서 기술한 분석방법에 따라서 본교의 실험대상학생들이 분석대상음을 발음했을 때 나타난 오류를 4장에서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분류된 오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첨가형 오류

첨가형 오류는 대체적으로 한국어와 영어간의 음절구조상의 차이점과 음성환경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원 음	ø										
오 류 음	b	d	h	l	s	t	w	n	r	i	u
오 류 율(%)	1.5	46	3	11	4	28	39	23	20	88	50

2) 생략형 오류

영어의 어중에 연속되는 자음을 영어학습자가 발음할 때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그 자음중 한 자음을 생략해서 발음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울러 전이음이 들어있는 단어의 발음을 할 때 전이음발음을 보류하고 후행음을 직접 발음해버리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원 음	b	d	p	t	j	r	w
오 류 음	∅						
오 류 율(%)	24	23	13	47	53	48	39

3) 대치형 오류

한국어의 음성구조에 없는 영어의 자음 「f v θ ð z ʒ」음을 그와 비슷한 한국어의 「ㅍ ㅂ 사 ㄷ 지」로 대치해서 발음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더우기 영어 단어의 음성환경에 대한 인지와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음으로 발음하는 오류도 범하고 있다.

원 음	b	f	f	v	v	θ	θ	ð	ð	t	t	tʃ	z
오 류 음	p'	p	hw	b	f	s	d	s	d	d	tʃ	t	s
오 류 (%)율	16	86	21	85	15	73	54	16	70	25	24	20	22

원 음	z	s	gz	l	b	n	l	d	p	t	k	g	n
오 류 음	dʒ	ʃ	ks	r	m	m	m	n	m	n	g	g	l
오 류 (%)율	73	32	29	61	24	44	29	64	55	56	41	68	42

원 음	r	t	au	æ	i	i	ɔ:	ɔ	j
오 류 음	l	l	ou	a	ai	ei	ou	a	i
오 류 율(%)	85	20	76	32	48	67	51	34	49

#### 4) 어순상의 오류

연속된 음으로의 발음이 난해한 두음을 발음할 때 발음을 용이하게 하려는 학습자의 의도가 작용하여 두음중 쉬운 음을 먼저 발음하거나 두음중 한음을 약화시키는 데서 일어나는 오류다.

원 음	nl	pf	rl
오 류 음	ln	fp	lr
오 류 율(%)	23	27	57

#### 2. 오류의 지도방법

그러면 이렇게 네가지로 나타나는 오류를 어떻게 교정하는 것이 좋은가? 그 지도 과정과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첨가형 오류의 지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한국인 학습자들은 두가지 면에서 발음되어서선 안될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handsome의 경우 복합어 hand + some으로 인식 /d/음을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자음과 자음이 연결되는 자음군 가운데나 불필요하게 모음 '으' /i/나 /u/를 삽입시켜 발음한다. 예를 들어 Christmas나 spring, spoon나 student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불필

요한 모음 삽입현상은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학습상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번의 handsome의 경우는 hand[hænd] + some[sʌm]의 복합어가 아니라 단일이므로 이때 /d/를 한국인 학습자들로부터 탈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Prator & Robinett(1985)이 지적한 자음군중 하나를 자연스럽게 탈락시켜 발음하도록 일반적인을 설명하도록 하면된다<sup>9)</sup>. Prator & Robinett이 지적한 자음군에서 일부자음이 탈락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을 보여 주는대는 다음과 같다.

- acts[æktz] → [æks]
- lifts[liftz] → [lifs]
- asked[æskt] → [æst]
- depths[depθs] → [deps]
- handkerchief[hæŋkətʃif]

둘째번의 자음군에서의 모음이 삽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몇가지 지도방법이 필요하다. 우선 /s/로 시작되는 자음군에서 /s/를 길게 발음하도록 한다. 첫음이 /s/란 사실을 자동적으로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지도방법은 Lado & Fries(1954 : 154) 및 Paulston & Bruder(1976 : 119)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그후 자음이 연결되는 중간에 불필요하게 모음이 끼어들지 않도록 이번에는 /p/, /t/, /k/등을 조음하도록 지도한다.

이과정의 다 끝나면 모음앞에 자음이 하나오는 단어부터 두개오는 단어를 거쳐 세개오는 단어를 단계별로 연습시키도록 한다. 이방법은 Prator

---

9)C.H.Prator, Jr. & B.W.Robinett(1985),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pp.181-82.

& Robinett(1985)에 의해 밑에서 위로 음을 쌓아 올라가며 지도하는 접근법(build - ups approach)으로 알려져 있다<sup>10)</sup>. 다시 말해 ray - tray - stray, lay - play - splay 식으로 지도를 한다.

이를 지도하는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연습시킬 자료상의 각단어를 읽고 학생들로 하여금 모방하도록 한다. 다음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연습자료를 보지 않도록 하고 두개의 팀으로 나눈다. 이어 교사가 연습자료의 첫단어를 발음하면 팀을 이룬 학생들이 두번째 단어와 세번째 단어를 번갈아 가며 말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ray라 하면 play - splay 식으로 말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영어 자음군에 모음이 삽입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rain - train - strain

방안(1) : T : S T : S T : S

방안(2) : T \_\_\_\_\_ : S \_\_\_\_\_

방안(3) : T \_\_\_\_\_ S \_\_\_\_\_ T \_\_\_\_\_

방안(4) : T \_\_\_\_\_ S \_\_\_\_\_ S \_\_\_\_\_

0 lay - play -splay, rate - trait - straight

rip - trip - strip, latter - platter - splatter

## 2) 생략형 오류지도

영어 모국어 화자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생략형 오류가 한국인 학습자에게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한국어와 영어의 음절구조 차이로 자음군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발음할 때 발음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

10)Prator and Robinett(1985), *op. cit.*, p.184.

이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그 중 한 음을 생략하는가 하면 조음점과 조음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오류를 주로 범하고 있다.

첫째, 자음군에서의 선행음 생략 현상을 막기 위해 교사는 정확한 조음방법을 제시해주고 직접 모범발음을 해주며 모방을 통해 의식적으로 숙달시킨 후에 무의식적인 발음이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예 1) /pf/ : 두 음이 연결되었을 경우 /p/는 두 입술을 다물었다가 입을 열면서 공기를 파열시켜서 내고, /f/는 윗니를 아래 입술에 가볍게 갖다대고 입안에 있는 공기를 불어냄으로써 발음하도록 한다. 그 전단계로 /p/와 /f/음의 최소대립을 이루는 단어를 중심으로 반복하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다. 그후 두 음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을 정상적으로 발음해주고 계속 되풀이 해서 발음하도록 한다.

· pace - face                      past - fast                      · pine - fine  
· camp fire                      lamp fire

둘째, 전이음 /j w r/ 중 /r/은 모음이 뒤에 올 경우는 생략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j/와 /w/의 경우에는 그음 뒤에 모음이 주로 오게 되는데 /j/음의 경우는 뒤에 /i/가 올 때 그리고 /w/음의 경우는 /u/가 뒤따를 때 발음을 생략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예 1) /ji/의 경우는 /i/보다 좀더 높은 위치에서부터 출발하여 /i/까지 내려오는 이동음으로 발음하도록 한다.

· ear - year                      · in - yeon                      · east - yeast  
· ill - yield

### 3) 대치형 오류지도

대치형 오류는 영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상의 차이로 인해 많이 발생

하고 있다는데 유의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1) /f/ → /p/

/f/를 발음할 때는 윗니를 아랫 입술에 갖다대고 공기를 불어내어 발음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p/와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해주면 더 효과적이다. 즉 /p/는 두 입술을 다물었다가 입술이 열리면서 입속에 있던 공기가 터져 나오면서 내는 음임을 주지시킨다. 발음을 학습하는 순서는 /f/음이 들어 있는 단어를 어두·어중·말미의 위치에 따라 속달하게 하고 문장을 통해 지도한다. /p/음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발음방법을 말한뒤 최소대립어를 통해 교사가 정상속도로 발음을 해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따라 하도록 한다. 이어서 두음이 최소대립을 이루는 단어를 통해 발음을 반복 속달시킨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그 발음을 잘 이해하는 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즉 교사가 말하는 문장을 듣고 학생들은 교사가 이미 나눠준 학습자료(handout)에 빈칸을 채우도록 해본다. 그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f/

0 face fifty fight offer sphere suffer  
leaf life puff laugh rough tough  
0 Fragrant Freda fried a fridge full of fritters.

/p/

0 peer peach past appear speak supper  
apple people purple pop rope stop  
0 Posh Patrica purchased a pound of Polish peaches.

/p/ - /f/

0 pace - face      past - fast      open - often

depend - defend      lap - laugh      leap - leaf

<다음 선생님이 읽는 문장은 여러분의 인쇄물에 있는 문장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듣고 빈곳을 완성하십시오.>

0 She pulled a long -----,      (pace or face)

0 Do you have a ----- in your study?      (pone or phone)

(2) /v/ → /b/

/b/는 1)에서 기술한 것처럼 /p/와 조음방법은 꼭 같으나 /p/는 무성음인데 반하여 유성음이다. /v/도 /f/와 조음장소는 동일하지만 /f/는 무성이고 /v/는 유성이다. 한국인 학습자가 /v/를 /b/로 대체하는 것은 윗니를 아랫입술에 대고 성대를 진동시키며 내는 /v/와 양입술을 다물면서 내는 /b/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다. 이같은 오류를 없애기 위해 앞서 제시한 지도방법을 취하되 두 음에 대한 청해식별지도물 덧붙이면 더 정확한 발음지도물을 할 수 있다.

우선 /v/음을 개별적으로 연습시킨다.

/v/

0 very vest voice      every several evening vivid love

0 Vicious victor vanished in a van full of vanilla

다음에 /b/에 대한 훈련을 시킨다.

/b/

0 bad bite boat      about tubful lobster

cabbage barber rubber lab sob tab

0 Barmy Barbara balanced a basket of bananas.

이어서 앞 두음에 대한 대답이 되는 단어를 연습시킨다.

/v/ - /b/

0 bat - vat berry - very boat - vote robe - rove

다음에 교사가 문장을 발성하고 빈 곳을 완성하도록 한다.

0 He made a ----- to greet us. (bow or vow)

0 He received a large ----- (boat or vote)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청해식별 연습을 시킨다.

a) same - different - 학생들은 두 단어를 듣고 같으면 same,  
다르면 different라고 말하십시오.

0 berry - berry 0 berry - very

b) 세 단어를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중 두 단어는 같고 한 단어는  
다릅니다. 발음을 듣고 번호(boat - ①, vote - ②)를 말하십시오.

0 boat - boat - vote 0 vote - boat - vote

c) 다음 읽는 단어 속에 /b/가 들어 있으면 ①이라 하고 /v/가  
들어 있으면 ②라 하십시오.

0 rubber 0 lover 0 beverage

(3) /θ/ → /s/

/θ/는 혀끝을 살짝 문 상태에서 안으로 혀를 당기면서 나는 소리이고  
/s/는 혀끝과 혀의 앞부분을 잇몸에 접근한 상태에서 거의 맞닿아 있는  
아랫니와 윗니에 공기가 마찰되어 나는 음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오류를  
없애기 위해 /θ/를 발음할 때 /s/와는 달리 교사는 혀를 양 이빨사이로

오도록 시범보이면서 훈련을 시켜야 한다.

/θ/

- 0 thank through healthy method breath truth
- 0 beneath his thumb, thick and thin
- 0 I think the thief is the thin sailor.

/s/

- 0 city cycle scene post proceed dress loss
- 0 Sad Sally savored a sack full of sandwiches.

/θ/ - /s/

- 0 thank - sank      thick - sick      mouth - mouse
- path - pass

<다음 문장을 듣고 옳은 것에 밑줄 그으시오.>

- 0 Are you (thinking, sinking) or just lying there?
- 0 We must gave (truth, truce) at all casts.

(4) /ð/ → /d/



/ð/음은 조음방법이 /θ/와 같으나 /θ/는 무성음이고 /ð/는 성대를 진동시켜서 소리나는 유성음이라는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구분이 어려운 영어의 /d/는 혀끝을 윗 잇몸에 밀착시켜 공기를 압축하였다가 혀끝을 떼면서 조음시킨다. 이 원음과 대치음에 대한 훈련도 단어와 최소대립어를 중심으로 연습시키면 된다.

/d/

- 0 dead dear dime handball redcap bed did tried
- 0 Dirty Duncan dreamed of a dozen dainty duck-eggs

/ð/

0 this there though gather leather breathe smooth

0 this or that, then and there

0 You said that you breathed easily.

/ð/ - /d/

0 there - dare      they - day      though - dough

lather - ladder

<다음 문장을 듣고 옳은 것을 밑줄 그으시오.>

0 Can you pronounce (these, d's) perfectly?

0 (They've, Dave) sat there for hours without moving.

(5) /z/ → /dʒ/

단어에 나오는 /z/음을 /dʒ/로 대치하지 않도록 양음의 명확한 차이를 주지시킨다. /z/음은 윗니와 아랫니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아랫 턱을 올려 혀끝과 혀의 앞부분을 윗 잇몸에 근접시키고 공기가 통과하면서 아랫니와 윗니가 마찰을 일으키며 나는 소리이다. 반면에 /dʒ/는 입술을 약간 내밀고 혀의 앞부분을 잇몸 가까운 입천장에 가까이 접근시키고 입안의 공기에 압력을 가하였다가 혀끝을 천천히 떼면서 조음되는 소리로서 구개음인 점이 /z/와 아주 다르다.

/z/

0 zero zip zoo      cousin loser visit

exercise lose prize

0 He flew flies buzzing round his eyes, ears and nose.

/dʒ/

0 Jeep juice journey engine soldier suggest

image village wage

0 Jerky Gerald juggled with some jars of jam.

(6) /l/ → /r/

영어에서 /l/과 /r/은 서로 다른 음이지만 한국어에서는 다 같은 /ㄹ/로 표시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분절음 체계의 차이로 인해 학생들은 [l]과 [r]을 구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사실 영어의 /l/은 혀 끝을 윗 잇몸에 대고 혀의 양쪽으로 또는 어느 한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했을 때 생기는 음이다. 반면에 /r/은 /l/의 조음위치에서 출발하여 뒤따르는 모음의 위치로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이동음이다.

따라서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l/과 /r/이 들어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말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의 /l/은 우리말의 물·불의 /ㄹ/에 해당하며 영어의 /r/은 ‘아리랑’, ‘보리’ 등의 /ㄹ/에 해당하지만 특히 영어의 /r/과는 달리 입안의 훨씬 안쪽에서 생성되는 점이 다름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영어의 /l/과 /r/의 발음지도시 /r/이 들어 있는 단어는 마음속으로 우리말의 ‘우’모음을 발음하고 곧바로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근거는 어린이가 /r/음이 들어 있는 단어를 배울 때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w/로 대체하는 과정을 보이는 데서 시사받은 것으로 /w/가 발음시 우리말의 ‘우’와 비슷하게 입술 모양을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rabbit를 배울 때 wabbit으로 처음에 배우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쉬운 소리로 내보려는 취지에서이므로 이를 한국인 학습자의 /r/발음지도에 적용시키면 된다는 것이다<sup>11)</sup>.

/l/은 혀끝을 윗 잇몸에 대고 혀의 양쪽으로 또는 어느 한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했을 때 생기는 음이다. /r/은 /l/의 조음위치에서 출발하여 뒤따르는 모음의 위치로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이동음이다.

/l/

O lady learn line battle little middle kill meal milk

O Little Lola lapped up a liter of lemon juice

/r/

O return rich round write merry sorry break train

O The rusky wreck has run arround on the rocks of the Barrier Reef.

/l/ - /r/

O light - right liver - river long - wrong

alive - arrive cloud - crowd glass - grass

<다음 문장을 듣고 완성하시오.>

O He looked around in a dim ----- . (light, right)

O Ellan was ----- an egg for her breackfast. (flying, frying)

#### (7) 비음화 대치

한국인 학습자들은 한 단어나 어구상에서 비음이 아닌 음을 비음으로

---

11) 어린이가 영어를 말할 때 [r]을 [w]로 대치하는 문제는 Hyman(1975 :22)을 참조할 것

대치하는 잘못을 대부분 보이고 있으나 비음은 원래의 음이 아닌 다른 비음으로 대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즉, 앞서 분류하였듯이 /b/, /l/, /d/, /p/, /t/, /k/, /g/등을 각각 /m/, /n/, /n/, /m/, /n/, /g/, /g/으로 잘못 발음하는가 하면 /n/과 /g/을 /m/과 /n/으로 대치하는 예도 있다.

이 잘못된 발음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비음에 대한 발음방법부터 익혀야 잘못된 환경에서 비음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먼저 /m/은 양입술로 입으로 나오는 공기를 막고 성대를 진동시키며 비공을 통하여 공기를 내보낼 때 나는 소리다. /n/은 혀끝을 잇몸에 붙이고 공기가 입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성대를 진동시키며 공기를 코로 내보내며 나는 소리이며 /g/은 혀의 뒷부분을 언구개에 붙여 입으로 공기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성대를 진동시키면서 공기를 코로 나가게 할 때 나는 소리다.

이들을 단어별로 연습하고 최소대립어와 최소대립이 되는 문장을 통해 비음을 습득하는 과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m/

O make moon famous almost company autumn climb  
O Merry Michael munched a milligram of mine.

/n/

O name never manner only fan fine run  
O Naughty Norma gnawed a knob of nutty nought.

/g/

O long spring kingdom language distinct pink

O rising and leaping, sinking and creeping,  
swelling and sweeping, showering and springing

/n/ - /ŋ/ - /ŋk/

O ban - bang - bank	bun - bung - bunk
sin - sing - sink	sun - sung - sunk
thin - thing - think	win - wing - wink

O They ran and rang the bell.

A new gang war began.

What are you doing with the ink?

<다음 문장을 듣고 옳은 것에 밑줄 그으시오.>

O The boys used to (bang, bank) on the doors

O His nose was long and (thin, thing).

이미 앞에서 비음에 대한 지도를 하였으므로 원래음이 비음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가 되는 오류음에 대한 지도를 약간 더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음환경에 있는 폐쇄음 /p b t d k g/이 들어있는 단어학습은 음절단위로 나누어 발성연습을 한다. 예를 들어 goodness를 good-ness로 나누어 첫음절의 마지막과 둘째음절의 시작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그밖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O ab·normal, sig·nal, sub·marine, sub·mit

이를 지도할 때는 음절간을 발음할 때나 단어와 단어 간을 발음할 때 비교적 느린 속도의 간격을 두고 점차 정상속도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발음연습을 시키면 된다. 특히 /g/음을 /n/으로 대치해서 발음하는 경우는 최소대립을 이루는 단어를 통해 연습시킨 후 문장속에서 유사한 대립을

이루도록 하여 연습시키면 된다. 이에 대한 Paulston & Bruder(1976)의 방법을 들면 다음과 같다<sup>12)</sup>.

○ taken - taking, sit - in - sitting, be-in - being

○ This building has built in air conditioning

둘째, 첫째와 같은 환경의 어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비음환경하에 있는 단어와 그외의 단어와 발음시 일정 간격을 두고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정상속도로 발음해나가는 발음연습을 하도록 한다.

○ Keep, neat ..... → Keep ..... neat ..... → Keep neat

○ Keep young, hang up my coat, hot month, let me see,  
back number, Kick me, big mistakes

#### (8) 축음화 대처

이 오류는 /l/의 전 또는 후에 /n/·/r/·/t/로 계속될 때 서로 조음위치는 같으나 /l/의 음이 강도가 높기 때문에 /n/·/r/·/t/와 /l/을 동시에 이어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호 발음하기 용이한 /l/음으로 발음할 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축음화는 어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오류도 앞서 본 비음화처럼 학습자가 당연한 것처럼 잘못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어구의 학습은 개별단어로 5회 정도 발음하고 두 단어 발음의 시차를 넓게 잡았다가 점차 좁혀 나가는 방법으로 지도한다.

○ full name(예시)

i) full(5회) → ii) name(5회) → iii) full ..... name -

---

12) C. B. Paulston & M. S. Bruder(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 Winthrop, p.122.

full ... name - full .. name - full name  
O moon light, well-known, all right, still right,  
year round, at least, but listen, get light

(9) 음절구조의 지도

이미 앞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이 단어내부의 자음과 자음 사이 또는 단어말에 불필요하게 모음을 삽입하는 문제에 대한 지도방법을 밝힌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발음지도상 한가지 더 지적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한국어 음절구조와 영어의 음절구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미 한국어의 음절조직에 익숙한 학습자들이 영어의 단어를 배울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최대 음절구조인 C(G)VC와 영어의 최대 음절구조인 CCCV(G)CCCC에 나타나는 제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음상 한국어의 최대음절구조는 모음을 중심으로 음절초에 자음하나, 전이음 하나, 그리고 음절안에 자음 하나 이상은 올 수가 없으나 영어의 경우는 발음시에 음절핵을 중심으로 음절초에 자음이 최대 세개, 음절말에 자음이 최대 네개까지 올 수 있다.

이때 영어에서는 음절초에는 /g/을 제외한 모든 음이 올 수 있으며 음절말에서도 /h/를 제외한 모든 음이 허용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음절초에 /g/을 제외한 모든 음이 올 수 있으나 음절말에는 기식음, 성문음, 마찰음, 폐찰음, /r/음 등은 올 수 없고 오직 비 기식음, 비 성문파열음, 비음 그리고 /l/음 만이 올 수 있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 학습자들의 불필요한 /i/모음 삽입은 바로 이런 양 언어의 음절구조상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불가피한 것이다.

(10) /au/ → /ou/

한국인 학습자가 ow나 ou가 들어있는 단어를 발음할 때 /ou/로 발음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오류는 w와 u가 /u/소리를 갖고 있어서 무심코 /ou/로 발음해버림으로써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ow와 ou의 발음은 /ou/보다 /au/로 소리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와 같이 한가지 음으로 발음해 버리는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au/음을 갖는 단어와 /ou/음을 갖는 단어들에 대한 발음연습을 함으로써 음성환경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au/

O out - about, mount - amount, round - ground

loud - aloud, bough - plough - drought

/ou/

O go - ago, so - also, tone - stone

most - almost

위에서 알 수 있듯이 /ou/가 들어있는 단어는 다 [au]로 발음되지만 [ou]로 발음되는 것은 /o/가 들어있는 단어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11) /i/ → /ai/

영어 단어의 내부구조가 「i + 자음 + e」인 경우 /ai/와 같은 소리가 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음도 음성환경의 변화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현재형에서 /ai/음이었던 것이 과거분사형으로써 /en/이 현재형에 첨가하게 되면 /i/음으로 발음한다.

/ai/	:	/i/
bite - bitten		drive - driven
hide - hidden		ride - ridden
write - written		rise - risen

(12) /i/ → /ei/

영어의 음절구조 「a + 자음 + e」의 구조를 갖는 형태의 발음은 강세가 있는 음절의 경우는 /ei/로 소리가 나고 약음화되었을 때는 /ə/나 /i/로 소리가 난다. 한국인 학습자들이 이와 같은 발음에서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은 「a + 자음 + e」형의 음절구조를 가진 단어가 1음절어였고 당연히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확장된 다른 경우에도 /ei/로 발음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오류를 바로 고치기 위해서는 강세가 있는 단어와 없는 단어의 발음연습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ei/	_____	/i/
o cate	_____	delicate, mate _____ climate
face	_____	surface

(13) /ɔ:/ → /ou/

/ɔ/음은 우리말에는 없는 소리로 입을 둥그랗게 벌리고 우리말의 /오/와 /어/의 중간음이다. /ou/는 /ɔ/보다는 입은 덜 벌리나 혀는 약간 높게 발음을 시작하여 혀의 맨 안쪽 부분이 천장에 닿게 올라가면서 우리말의 /오우/처럼 나는 소리다. 그러나 /o/는 명확하게 발음하고 /u/는 완전히 /u/까지 이르지 않고 우리말 /으/에 가깝게 끝나는 소리다. 따라서 이음에 나타나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ɔ/의 위치에서

점차 /u/의 위치로 가면서 입술을 둥그랗게 하여 발음하다가 /o/에 이르면 중단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면 효과적이다<sup>13)</sup>. 두음에 대한 지도는 개별음을 단어와 구를 통해서 학습하고 단어와 문장상의 최소대립의 짝을 통해서 두음의 차이를 훈련시키는 것이 좋다.

/ɔ:/

0 all almost law saw bald cause taught

0 across the walk, a horse's stall, along the walk

/ou/

0 go so throw stone note hope

0 an open coat, his own show, wrote a note

/ɔ:/ → /ou/

0 law - low      saw - sew      clause - close

0 When they woke, they took a walk.

0 Shall we paint the (hall, whole) floor?

The (cost, coast) is high along the shore.

#### 4) 어순상의 오류

어순상의 오류는 음을 서로 바꿔 발음하는 경우로 두 자음이 언접되어 이루어진 단어에서 서로 배타적인 발음이어서 발성시 양성을 띤 음을 먼저 발음하려는 의사가 표출되어 범하는 오류다.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단어는 주로 파생어나 복합어다. 파생어와 복합어의 발음에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각기 단어를 두 부분 「개별단어 + 어미(후행단어)」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발음하는 과정을 거쳐서 두 부분을 연결시켜 아주

13) C.B. Paulston & M.S. Bruder(1976), *op. cit.*, p.126.

느린 속도로 발음을 되풀이 시키고 두 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한다.  
어느정도 되풀이해서 발음 연습을 한 후 정상속도로 발음하도록 발전시켜  
나간다.

예시) lone ... → lone · · lone → - ly · · · - ly · · ly →

lone · · · ly → lone · · ly → lonely → lonely

○ only, mainly, unless, campfire, hopeful, nearly, poorl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VI. 결 론

본 논문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영어 단어와 어구를 발음할 때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여 그 오류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오류를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그 지도방법을 고찰해 보았다.

필자가 설정한 실험 대상 학생들이 분석 대상어를 발음한 것을 녹음하여 4장에서 오류 유형, 즉, 첨가형 오류, 생략형 오류, 대치형 오류, 어순상의 오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첨가형 오류에 있어서는 두가지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 그 하나는 모국어 화자들이 묵음화로 내재화되어 있는 것을 학습자들이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류다. 예를 들어서 handkerchief을 [hæŋkətʃif]으로 발음해야 할 것을 /d/를 첨가하여 [hændkətʃif]으로 발음함으로써 언어 내적 오류(internal errors)를 범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이미 익숙한 학습자들이 영어 단어를 접하게 되면 한국어 음절 구조에 맞추어 그 영어 단어를 재분절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재분절시 삽입되는 불필요한 음인 /으/(i)나 /우/(u)음으로 학습상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생략형 오류로 나타나는 오류 중 하나는 자음과 자음이 연속되어 이어질 때 앞 자음보다 뒤에 오는 자음을 먼저 발음하고자 하는 의욕 때

문에 선행음을 생략하고 후행음을 발음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복합어나 파생어에서 단어의 음절말을 탈락시키는 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나머지 하나는 전이음 /j r w/의 조음위치를 잘 알지 못하는데서 오류를 보이고 있다. 전이음 생략현상 중에서는 /j/음이 어두에서 전설모음 앞에 올 경우와 /w/음이 후설모음 앞에 나올 때 발음에 많은 곤란을 느끼고 있다.

셋째, 대치형 오류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범하는 가장 많은 오류임을 보여준다. 이때 한국어에 없는 음인 /f v θ ʒ z ʒ/을 발음할 때 그와 유사한 한국어 음인 /ㅍ ㅂ 사 ㄷ ㅈ/에 해당하는 영어음인 /p b s d dʒ/음으로 발음하는 오류는 영어표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 발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류는 원음에 대한 조음위치를 모르거나 무의식적으로 한국어 음에 있는 음과 비슷한 음으로 대치해서 발음함으로써 일어나고 있다. 결국 한국어에서는 한음소인데 영어에서는 두개의 음소로 나뉘어 있어 두개의 영어음을 혼동하여 사용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측음(laterals) /l/은 한국어 음운구조에서 어두에 오지 않고 어말에만 오기 때문에 어말에서는 오류가 없으나 어두에 쓰였을 경우에는 /r/음으로 대치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인 학습자들은 비음이 아닌 것을 비음으로 발음하거나 비음이라도 다른 비음으로 잘못 발음하는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p b t d k g/는 비음과 조음위치가 같기 때문에 그 앞 또는 뒤에 비음 /m n ŋ/이 오게되면 입으로 터져 나와야 할 소리가 비음의 영향으로 비강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므로해서 비음화되는 오류를 낳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비음화시켜 발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모음을 다른 음으로 잘못 대치하는 오류는 철자를 그대로 소

리념으로써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에 학습된 단수형이나 현재형의 발음을 복수형이나 과거분사형에도 과잉적용시켜 나오는 오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넷째, 어순상의 오류에 있어서는 두개의 자음이 연속되어 일어날 때 서로 배타적인 소리로 발음상 곤란을 느낄 때 발성시 양성을 띤 음을 발음하려는 학습자의 의사가 표출되어 나타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위에 나타난 발음의 오류를 방지하고 교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 지도가 필요하다. 영어학습 초기에는 개별음소에 대한 정확한 조음방법을 철저히 익혀 발음하도록 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최소대립어나 어구·최소대립문장을 통해 문제가 되는 발음을 계속 연습시키도록 한다.

첫째, 첨가형 오류는 모국어 화자들에게 묵음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음에 대한 음성환경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오류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오류음에 대해서는 동일한 음성환경을 가진 단어들을 연습하도록 한다.

둘째, 생략형 오류는 오류가 발생하는 파생어와 복합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발음연습을 시키고 점차 발음속도를 빨리하여 두 부분을 한번에 발음하도록 하면서 정상속도로 발음하도록 한다.

셋째, 대치형 오류는 개별음소, 단어, 어구, 문장순으로 발음연습을 하되 유사음소를 갖는 최소대립훈련을 아주 많이 시킨다. 즉 한국어에 없는 음소에 대해서는 minimal pairs drill를 통해 음소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비음화되어 발음하는 경우에는 선행음소가 들어 있는 부분과 후행음이 들어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별개단어로 발음을 숙달시킨 후에 전체에 대한 연습을 한다. 아울러 모음의 발음에 대해서는 철자와 발음의 차이점을 인지하게 하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단어를 예시하고 그를 통해 음성환경과 그에 따른 발음을 익힌다.

넷째, 어순상의 오류도 대체적으로 파생어와 복합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본래의 단어에 대한 발음연습을 충분히 시키고 나서 파생어와 복합어를 익히도록 한다.

지금까지 필자는 오류유형에 따른 지도방법을 위와 같이 검토해 보았다. 필자는 이와 같이 오류음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지도방안을 고찰하면서 학습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했던 오류까지도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를 듣고 표현함에 있어서 발음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도 발음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교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감을 지울 수 없었다. 앞으로 이같은 취지의 발음오류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도가 자주 시도되길 재언으로 남긴다.



## 참 고 문 헌

- 김 기 섭(1977), “영어오류음에 대한 음운로적 해석”,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과 영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 순 택(1975), 「영어 발음 연구 - 이론과 실제」, 광문사.
- 변 창 진(1974), 「영어학습지도」, 신아사.
- 신 성 철·박 의 재(1987), 「영어교수법」, 한신문화사.
- 양 동 휘(1986), 「영어음성학」, 범한서적주식회사.
- 유 진 형(1989), “오류분석의 방향과 문제점”, 「영어교육」제37호, 한국영어교육학회.
- 이 계 순(1984), 「영어교수법」, 신아사.  
(1969), “Perception과 production”, 「언어교육」제1권 제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조 준 학(1969), “Contrastive Analysis와 Common Errors”, 「언어교육」제11권 제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최 진 황(1986), 「영어교수법 이론과 적용」,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1991), 「발음지도자료」, 금성교과서주식회사.
- Bell, R. T.(1981), *An Introduction to Applied Linguistics :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London : Batsford Academic and Educational Ltd.
- Bronstein, A. J.(1960), *The Pronunciation of American English : An Introduction to Phonetics*, New York : Meridith corporation.

- Brown, H. D.(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 Prentice-Hall.
- Corder , S. P.(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Dulay, Burt, & Krashen(1982), *Language Two*,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s, C. C.(1960),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ass, R.(1984), *Phonology : An Introduction to Basic Concept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ulston, C. B. & Bruder, M. N. (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Mass.  
: Winthrop.
- Prator, C. H. Jr. & Robinett, B. W.(1985),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4th ed., New York : CBS College  
Publishing.
- Richards, J. C.(1974), *A Non-Contrastive Approach to Error  
Analysis*, English Language 25.
- Rivers, W. M.(1981),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2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vick, E. W. (1983), *Teaching and Learning Langu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English Learner's Errors in  
Pronunciation and Their Correction**

Whang, Sang-sun

*English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ong-hoon*

The purposes of this thesis are mainly twofold : When English-learners pronounce English words or sentences, what errors do they make? what is the desirable way to correct them?

To accomplish these goals, the writer made 30 Korean English learners pronounce 160 words and phrases that were extracted from an English textbook and identified, classified and analyzed their errors of addition, omission, substitution and reordering.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determined why the errors are made and how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June, 1992.

teachers should correct the errors of learners in the classroom.

The results of pronunciation errors of learners and procedures for correcting the errors are as follows :

(1) There were two forms in addition errors. : One was an intralingual error that was made because learners had little knowledge of silent letters of the English language. The other was an interference error that was made because learners didn't know the difference in the syllable structure betwee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

(2) One of the errors of omission occurred when learners have a strong desire to pronounce the second letter prior to the first when two letters are linked together. They occasionally omitted the first letter and pronounced the second only. The other was shown because they didn't know the point of articulation of glide consonant /j r w/.

(3) The substitution errors happened most frequently. Learners made errors as they didn't know the point of articulation of the original sound or substituted the original sound for the similar one in Korean sound systems. In addition, Learners mispronounced /l/ for /r/ ; non-nasal for nasal ; one vowel for another.

(4) When pronouncing two sequential consonants of a word, they committed reordering errors. The reason for these errors was that they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pronounce in an easy sound rather than in a difficult sound.

---

In order to prevent such errors in advance or correct them, teachers must instruct learners as follows :

First, the environments that have silent sounds should be presented to learners and should be drilled continuously so that errors should not be made. And also let learners drill the words that have the similiar sound environment.

Second, let learners drill derivational or compound words (in which they make errors) with deviding the words into two parts. After that, gradually let them accelerate the speed of pronunciation and then pronounce two parts at a normal speed.

Third, let the learners drill pronunciation of each phoneme, a word, a phrase and a sentence, and drill pronunciation through minimal pairs. The phonemes that are not in Korean should be able to be pronounced distinctively through minimal pairs.

Finally, let learners drill the pronunciation of the first part of the words, and then drill in full words to remedy reordering errors.